

[주제 발표 IV]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

오정설(부산환경교육연구회 회장)

1. 서 론

국제 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UNEP 창립)이 있었던 70년대 초반 해도 우리는 마실 물이나 공기 오염은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불과 20여년 지난 지금은 우리 주변의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악취와 함께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고, 주위의 산이나 들도 산업 폐기물,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각종 오염물도 병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로 수많은 공업단지 조성, 인구의 증가, 도시화 등의 원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신만의 편리한 대로만 사는 현대인의 물질적 이기주의, 편의주의, 일회성주의 등으로 인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전통적인 가치관 상실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한 국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해 물질의 유입이 인접 국가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어 지구 온난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방사능 오염 등에서 보듯이 환경 문제는 전세계적인 심각한 인류 생존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그린라운드(GR)가 적용되면 자연을 보호하지 않은 무차별한 산업기술 개발은 국제 사회에서 강제적인 제동을 받게 되어 오히려 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는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실천해야 할 때다. 이러한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주변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강과 바다 속까지 높아져야 한다.

개개인의 편리를 추구함과 일부 집단의 상업적 이익 때문에 환경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나아가서는 사회 교육까지 지금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부산의 고등학교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 환경교육 현장

1) 생활 지도 차원의 환경교육

근래에 와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은 어릴 때부터 일상 생활을 통해 환경에 관한 인식을 심어 주어

야 한다는 소리와 함께 고등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정규교과를 통한 환경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시행되는 '96학년도부터는 현재보다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마다 환경교육은 방법과 지도 내용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환경 관련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지도
(과학 교과, 사회 교과, 가정교과, 국어교과 <작문 지도>, 미술교과 <포스터> 등)
- 학급회 운영 -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
- 혼화(학교장, 담임) - 혼화 자료(교육연구원 자료), 환경 관련 TV보도·신문 기사 등 활용, 환경 단체 발행 간행물 등
- 특별 활동을 통한 환경반 운영
- 환경 정화 봉사 활동
- 환경 부서 활동('94년 10월 학교 사무 분장에 환경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거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분리 수거 지도 · 쓰레기 줄이기 지도 · 휴지, 쓰레기없는 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약 생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수, 절전 · 세제 사용 줄이기 · 폐휴지 수집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변 환경 정화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토요일 오후(2학급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연계한 녹색 소비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통신문을 통해 환경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연구회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및 발표회를 통한 환경교육 학습 자료 개발

이상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으로 기본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다.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환경교육

학교 교육에서 교육 과정은 교육의 목적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기준이다. 환경교육에 관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간단하게 고찰해보면 80년대부터 우리 나라의 산업은 더욱 발전하면서 생활 수준도 향상되고 소비 성향도 늘기 시작하여 환경 오염은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였다. 때를 같이하여 환경교육도 이 때부터 교육 과정 속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대개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새 교육 과정 속에 환경교육의 관심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1년 개정된 제 4차 교육 과정 속에 환경교육의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학교 교육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 '88년 개정된 제 5차 교육 과정에서는 단편적인 면이 있었고 교육하는데 체계적으로 미흡한 점

이 지적되기는 했으나 환경교육을 더욱 강조한 내용들이었다.

· '91년에 발표된 제 6차 교육 과정 개정안에서는 환경 관련 과목(중학교-환경, 고등학교-환경과 학)을 독립시켜 중등학교에서 선택하게 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상의 교육 과정 변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학교에서도 환경교육의 절실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수업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할 때다.

3) 선택 교과로서의 환경 과목

이미 '95년도부터 중학교에서는 환경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데도 중학교의 현실은 한문, 컴퓨터의 선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 7개 교과(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환경과학) 가운데서 환경 교과 지도 교사의 부족, 환경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겠으나 얼마나 많은 고등학교가 환경과학 교과를 선택 교과로 채택하여 가르치느냐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유관 기관 지원 상황

지금까지 부산의 학교 환경교육은 학교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분적, 단편적이기는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유관 기관의 지원으로 일선 학교의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1) 부산과학교육원

부산과학교육원에서는 '95. 1. 12 환경과학실을 처음으로 설치, 첨단 기자재를 확보하여 환경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부산 지역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학교 교육현장의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1) 보유 기자재

- 수질 검사 부분 -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외 50종 61점
- 대기오염 측정부분 - 오존 측정기 외 7종 7점
- 전자 현미경(SEM, TEM)외 다수 '96년도 확보 예정

(2) 학교 지원 내용

- 환경과목 관련 교사의 환경 관련 연구의 장으로 활용
- 학생(클럽활동중심)들의 실험의 장으로 이용
- 학교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문제 해결 센터의 역할
- 일선 학교 교사들의 환경 과목 연수
- 부산 환경교육 연구회 지도 자문 역할
- 간단한 수질 검사, 대기 오염도 측정, 소음 측정 등
- 환경 보호 VTR 자료 보급으로 환경 보존 풍토 조성

2)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에서는 “밝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환경교육”(중·고등학교 편) 책자를 '94년 10월에 발간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지금까지 학습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에 환경교육 자료 제공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학교 환경교육의 관심도를 높혀주고 있다.

(1) 밝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환경교육 내용

- ① 환경교육의 배경
 - 환경속에 사는 우리
 -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
 - 환경과 인간화 교육
- ② 환경교육 훈화 자료
 - 우리 주변의 환경 (10편)
 - 깨끗한 물 (10편)
 - 맑은 공기 (10편)
 - 생명의 터전 (9편)
 - 소음과 생활 (8편)
 - 쓰레기와 자원 재활용 (10편)
 - 산업화와 환경 (9편)
 - 쾌적한 우리 고향 (10편)
- ③ 국제 환경 협약 요약과 참고 자료 45편

3) 환경교육연구회 활동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환경 오염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함께 걱정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사들의 모임인 부산 환경교육연구회가 '94년 9월 초에 창립 총회를 가졌고 시범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내용의 창간호('94. 12. 20)를 발간,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였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95 학교 교육 개혁 과제 영역의 한 분야로 환경교육 지역화 교수-학습 자료 개발(유치원, 초·등중, 고등학교)을 다음 내용과 같이 추진하여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 환경교육 지역화 교수·학습자료

내 용 학 교	환경 교육 학습 자료	연구위원	발 표 자
유 치 원	놀이를 통한 유아 환경교육 자료 개발	5명	수성국교 병설 유치원 이현경
초 등	온천천의 물을 살리자	5명	광안국교 정영길
중 학 교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의 군집 변화와 지표성을 이용한 수질 평가 자료 개발	5명	부일여중 윤병진
고등학교	중금속 검출 시험지 개발	5명	부산남고 김맹기

'95. 8. 18 부산 문화 회관에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환경교육 연구회원들이 모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한 세미나 개최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학습자료 개발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부산의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 발전 방향

지금까지 학교 환경교육은 부분적, 비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 6차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에는 환경과학 과목이 선택 교과로 채택되어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 속에 환경 과목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환경교육이 발전된다고 낙관만 할 수도 없다. 고등학교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첫째, 환경의 중요성을 전 교직원인 인식하고 선택 교과인 환경과학 과목이 많은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호해 주어야 한다.

둘째, 환경 교과를 지도할 교사 양성 문제의 선해결과 현직 교사의 환경 관련 연수 기회의 확대가 절실하다.

셋째, 환경교육은 전 교과를 통해 강조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이해 차원에서의 지도를 넘어서 직접 현장 체험을 통한 행동 변화가 나타나도록 지도해야 한다.

넷째, 학급회 운영에서 환경 내용의 토론회를 장려하며 특별활동(환경반)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환경 단체 가입 환경을 통해 환경 오염의 감시, 환경 보전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교육도 중요하다.

□ 환경 파수군

고교 1년생(미국 뉴저지주 벌링턴 카운티 거주)이 매달 1, 15일 2회에 걸쳐 델라웨어강의 지류인 파커스 크릭이라는 하천에 나가서 하천물의 투명도를 조사하고, 화학 약품을 이용 하천물의 수소이온지수를 재고 인산염과 질산염 농도 측정, 티오 황산염 몇 방울을 떨어뜨려 수중 산소량을 측정하고 이어 녹말 반응 실험을 한다. 결과를 비영리 민간 환경 단체에 보고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동아일보 그린스카우트 보도 내용).

여섯째, 학교별, 지역별로 시범 학교의 확대 운영으로 그 운영 효과를 다른 학교로 확산케하여 환경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자료를 보급하여 학교 환경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장차 21세기를 내다보는 필수적인 새로운 학습 내용을 담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환경교육은 지역간, 국가간 환경 오염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과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

- 컴퓨터 전화선이 연결되는 컴퓨터 통신시설 구비(Hitel, Dacom)
- 국내 Hitel Network 이용
- 국외 통신망(Internet) 이용

5. 맺음말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의식의 변화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해 본다.

첫째,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전 학생의 환경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아 환경과학 교과를 선택 교과에서 선택 필수 교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둘째, 환경과학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여 정규 수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현직 교사의 환경 관련 연수 기회의 확대가 절실하다.

셋째, 환경 이론 수업과 병행하여 현장 학습(소풍, 수학여행, 야외수련 활동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대도시, 농어촌, 공단인접도시, 해양인접도시 등)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환경교육은 환경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유치원으로부터 초등, 중등교육으로 연계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환경과 관련된 잘못된 습성을 고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환경 관련 단체,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환경교육 자료 및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토론 IV-1]

[주제 발표 IV에 대한 토론]

최석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한다. 본 토론은 발표자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코멘트한 후, 본인의 의견과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발표자의 글은, 크게 5장으로 나뉘어, ‘제 1장. 서론’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제 2장. 학교 환경교육의 현장’에서 현재 우리 나라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현황을 간단히 언급하고, ‘제 3장. 유관 기관 지원 상황’이라는 제목하에서는 부산 과학교육원과 부산시 교육연구원 및 부산환경교육연구회의 간단한 환경교육에 관한 활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제 4장. 발전 방향’에서는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7가지를 간단히 열거하였다. 끝으로 ‘제 5장. 맺음말’에서 앞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제언을 5가지로 묶어서 정리해 놓았다. 이상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반론을 제기할 것은 없고, 공감 내지는 지지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교육을 학교교육에서 강조하지는 주장과 둘째, 발전 방향에서 제시한 환경 과목을 보다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처 강화, 환경교사 연수기회의 확대, 환경교육을 전 교과를 통해서 강조하고 행동변화 유도, 환경교육 학술 자료의 지역화와 정보 교환, 현장 환경교육 강화 등의 부분이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에 다음 사항은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고 본다. 먼저, 발표 주제와 각 장 별 구성 및 장 별 제목에 대한 내용 서술이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과를 통한 환경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라는 표현은 “독립된 별도의 정규교과를 통한…”으로 해야할 것이다.

· 3장의 제목은 “고등학교 환경교육 실시 사례” 정도가 어떨까?

· 4. 발전 방향의 다섯째, 환경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 입장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 맺음말에서 고등학교 전 학생이 환경과목을 선택 필수 교과로 하자는 제안은 환경교육을 강조하는 의미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무리한 것이 아닐까? 그 보다는 환경교육 내용을 관련 교과목에서 보다 강조하여 포함시키고 현재의 환경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21세기의 어느 시기에는 환경 과목이 교육과정 상에서 보다 탄탄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

질문 사항은

· 부산 지역 고등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과 자료 개발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 부산 등 지역별 고등학교 환경교육 실시에서 특히 성공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때 실시상의 유의점은 무엇인가? 이고,

끝으로 고등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좋은 발표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토론 IV-2]

[주제 발표 IV에 대한 토론]

박종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발표자는 학교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환경교육의 강화, 학교 외 기관의 교육 지원 현황,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하여 학교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토론자도 발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특히 발표자가 부산 환경교육연구회를 이끌면서 현장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등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따라서 토론자는 발표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발표 내용에 부인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과정, 교사, 학생, 학습환경 등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므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고등학교 환경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교과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학교 환경교육은 그 역사가 얼마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제 6차 교육과정 개정시에 선택 교과이긴 하나 환경 과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환경교육 관련 연구 기관 및 단체, 즉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환경교육학회의 노력이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70년대부터 환경교육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교과과정의 정립이나 환경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사 연수 교재, 학습지도 자료의 개발 등 많은 공헌을 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제 6차 교육과정이 1996학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환경과학을 선택하는 학교 수도 밝혀지지 않았고, 교과서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등학교 환경교육을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환경과의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현장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발표자도 맺음말의 다섯째에서 학교 급별로 연계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좀 더 폭넓게 말하면 학교급별에는 환경교육 목적과 목표의 설정, 교과내 및 타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 학습지도 방법 및 평가 방법의 개발, 그리고 환경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연구 기관에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환경 전공 교사의 양성 및 현직교사 연수

발표자도 이 문제에 대하여 발전 방향과 맺음말에서 두번째로 지적하였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 더 부연해 보고자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6차 교육과정에서 환경 교과목의 신설이 확정된 것은 1992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전공 교사의 양성에 대한 방안이 빨리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중학교에서는 1995학년도부터 당장 환경 과목을 지도하여야 하는데 1994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 기관이 지정되었다. 이는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현직교사에게 환경 부전공 21학점을 이수시켜 환경 부전공 자격증을 부여하여 환경 과목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결정에 의한 것이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환경교육 전공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그때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수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환경 과목은 여러 교과목과 관련된 간학문적,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과목이므로 그만큼 교사의 다양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환경교사는 토의, 토론, 역할놀이, 게임, 현장견학, 조사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부전공 21학점의 연수만으로 우수한 환경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우수한 환경교사의 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학에 환경교육과를 신설하거나 과학교육과 또는 사회교육과에 환경교육 전공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아울러 우수한 환경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이에 맞는 교재의 개발이 절실하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환경 과목 이외에도 과학, 사회, 기술 과목 등에 환경 관련 단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과목의 담당 교사에 대한 환경교육 연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교육대학원의 활용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3. 현장 적용 가능한 학습 지도 자료의 개발

그동안 환경교육자나 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상당히 닦여져 왔으며, 얼마 전에 “환경교육론”이란 책자도 출판되어 환경 교사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과교육 측면의 이론적 연구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학교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의 개발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이는 앞서 교사양성 부분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학습지도 방법에 대해 별로 익숙하지 않은 점과 여러 가지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지도안의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환경교육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환경담당 교사들이 이들과 연계하여 현장지도 경험을 반영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발표자가 소개한 바와 같이 부산지역 환경교육연구회와 같은 교사 모임을 활성화시켜 환경교육 관련 연구자나 기관과 유대를 갖게 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4. 환경교육에 임하는 고등학생의 태도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은 현실적으로 대학입시의 영향을 대단히 받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교와는 달리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극력 강조하여도 대학입시와 관련되지 않으면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 다른 돌파구로는 수능시험의 탐구사고력 분야를 활용할 수 있다. 환경 과목에서는 과학적 탐구와 사회적 탐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탐구적 접근이 가능하므로 수능시험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요즘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STS(과학, 기술과 사회)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공통과학에서 과학탐구의 소재가 실생활적인 것이 될 것이다. 환경교육은 모든 소재가 STS적 소재이므로 환경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면 수능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면 학생들의 의욕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5. 환경교육에 적절한 학습환경의 조성

앞서 언급한 대로 환경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장견학이나 조사 및 실험활동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교과과정으로는 시간-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활동들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 물론 정규교과 시간 외에 소풍이나 견학시간 등을 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으로 보다 나은 환경교육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 -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 을 열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실천이 중요한 것처럼 환경교육을 위해서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환경교육"하면 누구나 중요하다고 대답하고, "환경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수긍을 하면서도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저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느 만큼의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모두 외면한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환경교육은 무위로 끝날 것이다.

환경 교과목의 독립신설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교과만 독립시켜 놓고 아무런 노력과 지원이 없다면 환경교육은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한다면 환경교육의 앞날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